



제과업계 새싹을 키우는 산실

## 전국제과강사연합회

제과제빵학원에 가면 미래의 오너셰프를 꿈꾸며 열심히 수업을 듣는 수많은 학생들을 볼 수 있다. 이들이 오너셰프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예비 제과인으로 첫발을 내디뎠을 때 만난 스승은 칠판 앞에서 땀 흘리며 제과이론과 공정을 강의하는 강사들이다. '전국제과강사연합회'는 국내 제과 꿈나무들을 키워내는 제과제빵학원 강사들의 모임이다. 때로는 엄한 모습으로, 때로는 자상한 모습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들이 뭉친 전국제과강사연합회는 제과업계의 새싹을 키워내는 산실이자 선의의 경쟁이 이뤄지는 공동체이다.

글 · 허윤정 기자 | 사진 · 차지현(스톤스튜디오)

1997년 시작된 '전국제과강사연합회' (이하 전강협)는 전국의 제과교육기관의 강사들로 이루어진 모임이다. 전강협을 이루고 있는 주춧돌인 40여 명의 회원들은 국내 제과 교육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현역 강사들. 현재 빵곰터제과제빵학원의 최덕규 부원장이 제6대 회장으로 뽑혀 모임을 이끌고 있다.

제과를 가르치는 특수 직업이다 보니 강사들의 노력도 다른 분야에 비해 세 배 이상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재료나 공정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이 탄탄해야 하고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제품에 대한 최신 트렌드도 놓쳐서는 안되며, 이와 같은 지식과 정보를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달에 한번씩 열리는 전강협의 모임에서 회원들은 서로 많은 도움을 주고받는다. 같은 일에 종사하며 느끼는 갖가지 애로 사항은 물론 그간 있었던 일들을 의 얘기를 정답게 나누는 친목의 장(場) 역할을 충실히 하는 한편 최근 업계 동향이나 서로의 교습방법을 주고받는다.

이들의 모임에 가면 '학생들의 이목을 확 집중시키는 법', '딱딱한 이론을 머릿속에 쏙 들어오게 하는 법' 등 현직에서의 경험으로부터 우리나라의 특별한 노하우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때로는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동료로써, 때로는 선의의 경쟁자로서 이들이 서로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각별하다.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가진 곳이 많지 않고 사람을 대하는 직업 특성상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고충을 함께 나누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회원들의 단합을 위해 여름마다 함께 가는 야외회는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한다.

전강협에서 주최하는 세미나는 1년에 4번, 계절별로 개최되는데 회원이 아닌 일반 제과인의 참여도 높을 정도로 내실있는 내용은 이미 정평이 나 있다. 각종 대회 입상자들이 실연 강사로 초빙돼 계절에 맞는 기획 상품 위주의 세미나 제품을 선보이며 다른 세미나가 실용성을 강조한 공정에 초점을 두는 것과 달리 학문적인 설명을 비중있게 구성해 회원들의 '가르치' 직업적 특성에 잘 맞추고 있다.

지난 4월 10일 군포에 위치한 현대제과제빵학원에서 열렸던 세미나에서는 캐릭터 마지팬과 케이크 데코레이션을 소개해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한불제과제빵학원의 하현수 씨가 강사로 초빙돼 마지팬으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를 선보였으며, 생크림을 이용한 데코레이션을 실연했다. 이 세미나는 세미나 장소였던 대강의실이 꽉 찰 만큼 많은 회원들이 참여해 전강협의 탄탄한 결속력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국내 학원들이 살아남기 위한 열쇠는 강사들의 실력향상이죠. 요즘 같은 미디어 시대에 학원들의 적극적인 홍보도 장려할 생각입니다.”

최덕규 회장은 앞으로 할일이 너무 많다. 수도권에 비해 뒤쳐졌던 지방 학원들을 활성화시켜 상향평준화를 시킨다는 것이 그의 첫 번째 목표. 앞으로 제 2의 도약을 꿈꾸며 새로운 임원진이 이끄는 전국제과강사연합회의 힘찬 항해를 기대해 본다. 13

1. 캐릭터 마지팬과 케이크 데코레이션 실연을 많은 인원이 참여해 진지하게 경청했다.
2. 세미나가 끝난 뒤 이승범 부회장의 설명을 듣고 있는 회원들.
3. 회원들이 실연 품목에 대해 초청 강사인 하현수 씨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4.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주인공을 마지팬으로 만드는 모습.
5. 세미나의 실연 강사인 하현수 씨 역시 전국제과강사연합회의 회원이다.

